

주의 수난 성지 주일

기도서 P. 275 C해

- 제1독서(이사 50. 4-7)
- 제2독서(필립 2. 6-11)
- 복음(루카 22. 14-23, 56)

숲 정이

| | |
|-----|-----|
| 발행인 | 김환철 |
| 인세인 | 김봉희 |
| 주간 | 조성호 |
| 편집 | 한상갑 |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주의 수난 성지 주일

김종길 신부

“호산나”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행렬하는 것은 영광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 성지행렬은 수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을 통한 생명의 승리를 뜻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수난사를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사를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감정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루카 22, 42).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지? 반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매사를 내 뜻, 내 주장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술을 과하게 먹고 술 주정뱅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알면서도, 늘 과음하여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어린 자식들에게 나쁜 표양을 주는 신자도 있습니다. 교무금은 양심대로 내면 된다고 하면서, 양심에 검은 털이 난 신자도 있습니다. 봉헌금은 형편대로 내면 된다고 알면서도, 늘 형편없는 신자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성서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으레히 성서를 읽지 않고 성경책(신·구약 합본)조차 없는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내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매일 2시간씩 보는 신자도 있습니다. 입술로 보다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처음보다 성당에 나온 예비자에게 친절할 인사 한번 않는 신자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상분을 보면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성지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찬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헛된 것으로 보일 것이며,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의 입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쓴 맛으로 밖에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형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사랑이 수 놓아진 십자가요, 세상 구원을 위한 승리의 십자가임을 새롭게 느껴야겠습니다.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의 수난사도 영광과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때도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감정으로 수고 수난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부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주인에게 돌려 주어라!

요사이 사립대학의 총장들이 임기를 남겨놓은채 그 좋은 자리를 물러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생들이 일부 총장이나 학장, 교수들을 물러나라고 웨친다고 한다. 퇴진을 요구당하는 교수들을 학생들은 어용(御用)교수라고 부른다. 전자(前者)는 때를 알아 물러날줄 아는 교육자들처럼 보인다. 후자들은 어쩌다가 물러나라고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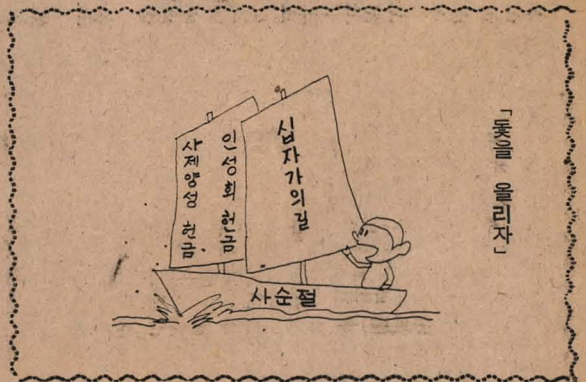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증병설 뒤에는 정신병자(누가 정신병자인가는 뒤로 미루고)에게 피격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마르코스의 필리핀이 아니고, 필리핀이 요구하는 마르코스가 되지 못한데서 오는 비극이다. 스타(Star)로 각광을 받고 무대에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날 때를 알아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떡고물 이야기로 유행어를 만든 어떤 정치인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차체에 정리 좀 해보자. 물러날 사람은 용서를 빌고 물러나라.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그것을 다시 주인(국민, 국가)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돌려 주어라. 내어놓으라는 소리가 있기 전에 말이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正義이다. 人權, 政治的自由, 所有權 등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돌려질때 진정한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안보도 저절로 된다.

지도자들은 부당하게 얻은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것까지 어렵게 지내는 남과 나누어야 한다. 계명을 잘 지킨 청년에게 당부하는 예수의 말씀은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였다.

지금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순절이다.

숲 정이 산책



전주교구의 성장과 내적 쇄신

—자치교구 반세기를 돌아보며—

김 봉 희 신부

본 교구 제 5대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은 금년을 특별히 「내적쇄신의 해」로 정하시고, 보다 깊은 신심의 강화와 교회의 쇄신, 정화를 도모하도록 교서를 통해 강력히 촉구하셨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 우리 교구의 발족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준비함에 있어, 이 신앙쇄신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임을 제삼 강조하신 바 있다.

이에 금년도 교구의 사목지침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교구의 발전과 성장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그 안에 교동친 순교 선열들의 뜨거운 신앙심과 오늘에 뒤이은 우리들의 신앙자세, 그리고 헤쳐가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본다.

1. 자치 교구의 태동

1784년 이승훈(베드로)의 영세로 이 땅에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진 뒤 한참 순교의 선혈로 이 강토가 붉게 물들고 있던 1831년 9월 9일, 하느님의 크신 섭리의 손길은 급기야 조선 교구를 설정, 고요한 이 아침의 나라에 희망의 태양을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그 100주년이 되던 역사적 경축년 1931년 5월 9일에는 당시 전라·경상도를 관장하던 남방 교구(대구교구) 감독 안주교님이 호남지구를 감독 대리교구로 설정 발표하고 감독대리(Foraneus)에 김양홍 신부님을 임명 하므로써 바야흐로 전주교구를 태동케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공식 교구(敎區) 아닌 감독대리구(監牧代理區)에 불과한 시도였다. 그렇더라도, 이 교장교우들의 투철한 신앙심과 불굴의 열성은 어쨌든 벽안의 노(老)주교님을 감동케 했고, 그로인해 장차 자치 교구 설정이라는 대 결단의 준비조치를 이렇게 취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는 기쁜 산천을 적신 수백 수천 순혈의 댕가였으리라. 그러기에 오늘의 교회 사가들조차 이 사실을 명기, 자랑스런 방인 자치 교구의 첫 발돋움요이 날이 곧 전주교구의 설정이라고까지 역사에 기록했는지 모른다. 아무튼 잊을 수 없는 대목, 우리 교구 영광의 첫 개가로 길이 기억하고도 남을 한 페이지라 할 것이다.

2. 전주 교구의 설정

정식으로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 전주 교구가 설정된 것은 1937년 4월 15일이다. 빠리 외방 선교회 대구 교구장 플로리아노 안주교님의 끈질긴 집념으로, 촉박받은 성지 전북에 전주 지목구(知牧區)가 설정되므로써 그야말로 한국 최초의 「자치 교구」 창설을 보게 됐고, 교제(敎階)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邦人 교구장을 모시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당시 교제는 초대 교구장

(Prefectus) 김양홍(스테파노) 신부의 성직자 14, 본당 14, 수녀 4, 신자 19,300명이었다.

자력(自力)으로 신앙을 영입하고 피로써 교회를 키워온 우리 한민족에겐 실로 153년만에 맞은 장거(壯舉), 정말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던 「방인 자치 교구」 탄생의 첫 순간이 아니었으랴! 참으로 복된 조상, 신심에 살고 죽던 위대한 선조들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 기쁨 뒤에 따라온 슬한 고난과 쓰라림의 역사—힘 없고 가난했던 망국의 일제치하, 그리고 6·25 전란의 갖은 압박과 시련속에 실용을 쟁으며 맨몸으로 지탱하던 이 교구 어른들의 공훈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그분들은 오직 신앙만을 안고 하나로 하나로 뭉쳐, 우직하리만치 외진 이 교회 이 교구를 가꾸고 지켜왔던 또 하나의 순교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들의 숨은 노고와 헌신속에 바로 우리들의 보람, 우리 교구의 뿌리깊은 증거와 신심의 자력이 어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우리 교구는 날로 번성했고, 그 뒤 1957년 1월 26일에는 제3대 교구장 김현배 신부의 주교 피임으로 대목구(Vicariate Apostolic) 승격을 보았다. 그리고 1962년, 가톨릭 본연의 「한국 교제」가 설정됨에 따라 3월 25일 드디어 우리도 세계 속에 어깨를 같이 하는 전주 본 주교구(Diocese)로 비약, 오늘의 발전된 모습을 이룬 것이다.

3. 우리의 과제—신앙쇄신

「邦人 自治 敎區」 이는 하루 아침에 붙여진 값싼 이름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했고 사도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그러했듯 죽음으로 맞은 개신, 부활의 이름이요 박해속에 피어난 영광의 표징이다. 용기굴에 묻혀 흙으로 연명하며 뜨겁게 신심을 달구어내던 신앙의 피난민, 우리 조상들의 열심을 되찾지 않고선, 그러기에 어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송구스런 이름마저 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모두, 명예로운 이름에 부끄럽잖은 후손 되기 위해 새롭게 심신을 가다듬고, 우리 다시 회개(悔改)와 각성을 이뤄야겠다. 이것이 바로 교서의 뜻이요 우리의 과제, 시급한 당면의 목표라 깊이 사려되는 바다. 우리 모두 다같이 금년 「신앙쇄신」 대열에 기꺼이 참여토록 하자.

이 땅에 새로운 「가나안」 복지를 이루고 영광의 엑소투스(Exodus), 파스카(Pascha)를 맞기 위하여—

〈교구 사목국장〉

□ 성주간(聖週間)

예수 부활전의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受難)을 기념하는 때이다.

◎ 성 목요일(4월 3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갖어 성체성사를 세우신 날이다. 교구장은 주교좌 성당에서 성유(聖油) 축성 미사를 거행하고, 사제들은 미사중에 주교에게 세명을 다시 다짐한다. 본당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세족제(洗足禮)를 하고, 미사 끝에는 성체를 미리 마련한 다른 감실(무덤 제대)로 옮긴다. 제단도 모두 벗겨지고, 십자가상은 자색포로 가린다.

◎ 성 금요일(4월 4일)

주님이 수난하고 죽으신 날이다. 본당에서는 대개 오후 3시경에 주의 수난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날의 예절은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은 단식제(대제)와 금육제(소제)를 지켜야 한다.

◎ 성 토요일(4월 5일)

밤에 잠입한 부활 전야 미사가 봉헌된다. 성당의 불을 끄고 성당문에서 부활초를 축성하여 어둠을 밝히며, 성당에 입장하여 기쁨의 미사를 봉헌한다. 영광송과 함께 성당의 종이 환희의 노래를 부른다. 밤미사에 영성체했어도 낮미사에서 성체를 한번 더 모실 수 있다.



「사랑의 사업 - 교구 인성회,

1980년을 향한 새 출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며...(로마 12, 18)

인간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특전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쓰기 쉽다. 그러나 그 특전으로 타인의 처지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그로인한 작은 희생의 행위야말로 사랑의 발로이다. 교회는 봉사와 희생에 따른 모습속에서 사랑의 교회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가 가지는 그런 사랑의 행위는 바로 우리의 행위이고, 그런 사랑의 모습은 교회가 보여야 하고 곧 우리가 보여야 한다. 예수는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가난한 사람들, 권력자의 압제에 저항할 힘도 없고 부단한 처우에도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중의 한분이셨다. 이것은 교회가, 곧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해주신 모범인 것이다.

지난 3월 22일 교구에서는 인성회 총회를 갖고 1980년도를 위한 새 임원 개편과 함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세웠다.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험벗은 이를 돕기 위한 교회의 한 모습으로 인성회가 조직되고 신자들의 작은 봉헌금으로 우리 주위에 사랑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고귀한 사업의 새 출발인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예년의 사업을 뒤돌아 보고, 새 임원 개편과 함께 80년도 예산을 세우고 금년 사순절동안 3월 28일 대제를 지킴으로 모아지는 우리의 정성과, 3월 30일 수난 주일의 특별봉헌금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사업에 쓰기로 결의했다.

고통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태연한 사람이 많지만, 고통중에 있는 사람을 어찌 안 도울 수 있겠는가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일진대, 나의 작은 정성으로 내 이웃을 위한 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고 교구 인성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 해야겠다.

지난 3월 22일에 열렸던 1980년도 교구 인성회 총회에서 개편된 새 임원과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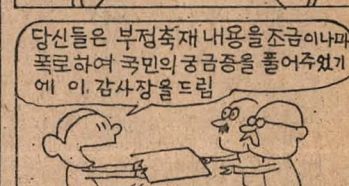
1. 새 임원

총재: 김재덕 주교, 위원장: 김환철 부주교, 부위원장: 김용태 관리국장, 사무국장: 최남수, 상임위원: 안득수·조성호·김을태·한상갑·김순성·김영자·수도자연합회장(이상 무순), 위원: 본당 주임신부·사도회장·봉사부장, 감사: 김남규·이태영, 자문위원: 김병열 신부·문정현 신부

2. 결의사항

사순절 특별헌금으로 ① 주교회 권고 대제(3. 28) 헌금과 수난주일(3. 30) 특별헌금 전액 납부 ② 교무금 동시 봉헌 본당(6개 본당)은 봉헌예물액수한도 전액 납부 ③ 그중 봉헌예물은 삼가 ④ 봉헌예물 소식은 본당의 숲정이 소식란에 명시 바람

요심이 (348)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
송옥의 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열)
 전화 ⑥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
 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방송시간 변경 및 원고모집
 변경: 4월 1일부터

1. 사색의 오출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2시20분~25분사이
- ② 담당: 나궁열 신부
- ③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향과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전주 노송동성당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② 담당: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전주교구청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작곡 시계)
 주 이 참 수(바오로)
 전주 남문열
 전화 ③ 8188 (자 ③0369)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구역전 앞
 최윤경 (유리안나)
 전 화: ② 8653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성유 축성 미사...4월 3일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 주교님 집전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레지오 마리에 가난한이의 모후 꾸리아 창립...3월 23일, 군산 오룡동 분당
※ 민족 복음화 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3. 전라북도 성모 기사회 모임...4월 5일 오후 2시, 파티마 성당에서
※ 오기순 신부님의 특별강론 있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문정현 수현구
보좌 신부 보태태
보좌 신부 보태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Gen 모임 안내
3월-주일 학생미사 후(남자·여자)
2월-토요일 오후 7시(여자)
일요일 **강사** 미사 후(남자·여자)
 2. 성주간 예절안내: 별지 안내문 참조
4월 3일 성목요일
성유 축성미사(주교님 집전) 오전 11시
최후의 만찬과 체포 오후 7시30분
4월 4일 성금요일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상의 죽음 예절, 오후 7시30분
4월 5일 성토요일
부활의 승리에 절-오후 7시30분
4월 6일 예수 부활대축일(공식미사-주교님 집전)
 3. 주일학교 부활대축일 미사: 4월 6일(주일) 오후 4시
 4. 마더 테레사 영화상영: 4월 6일 오후 8시30분
회비-300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38,68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원열근
보좌 신부 보태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축! 영세식: 4월 5일 저녁 8시(부활성야)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성삼일 행사: 저녁 8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4. 성서 강의: 4월 7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밤 8시
 5. 교주의 성기읽기: 요한복음 전체
 6.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0,40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오 기오열
보좌 신부 보태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분당 판공일정: 4월 1~4일, 빠지지 마세요
 2. 성주간 행사: 4월 3일 오후 7시-최후의 만찬미사,
4일 저녁 8시-주교님 집전, 수난예절
5일 저녁 8시-부활 전야미사
 3. 부활대축일: 미사-오전 8시30분, 10시, 저녁 7시,
주일학교 오후 3시 ※12일부터 오후 3시미사·2시교리
 4. 유아세례: 4월 5일 오후 3시(사부실에 접수)
 5. 대학생 모임: 매주<토> 오후 4시
 6. 진복회·반석회: 오늘 10시미사 후(각 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211,15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택성팔
보좌 신부 보태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1일부터 저녁미사 8시
2. 성주간: 성목요일(주의 만찬) 저녁 8시
세족례-조성호, 양규철, 박홍기, 박상기, 장동주,
유덕열, 유기순, 강기연, 김성원, 임종윤, 최용구,
이기배
※ 성체조배-철야 성체조배...배정표(계시판)
성금요일: (단식과 금육) 저녁 8시
공식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예수 수난 예식 저녁 8시
부활성야(부활 전야제) 저녁 8시(조 지참)
성세식-미사중에(유아세례 포함) 미리 신청 바람
4월 5일<토> 오후 2시
3. 부활대축일: 미사 주일과 같음
4. 주일학교 소식: 부활절 행사-그림그리기 1·2·3학년
글짓기대회-4·5·6학년

- 매일 미사 참례자 시상식-오늘 주일학교 미사때
 5. 학생회 소식: 셀벨 음악회 4월5일 오후 3시 강당에서
 6. 대청소: 4월 3일(성목요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316,39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한수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성삼일 전례: 성삼일 전례에 적극 참여합시다
성목요일(4월 3일): 저녁 8시, 미사-주의 만찬
세족례(사도회 임원) 성체조배(별지 참조)
성금요일(4월 4일): 저녁 8시, 말씀의 전례
※ 오후 3시-십자가의 길
주의 수난과 죽음의 장엄전례
장엄기구, 십자가 참미
망에수부활 대미사(4월5일)-저녁 8시, 부활전야미사-
새불의 축성(빠스카 조의 축성)-성가상 앞
영세식, 성세 서원 갱신식
 2.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새벽 6시, 10시 공식미사,
저녁 7시30분
 3. 영세식: 5일 저녁 8시(부활 전야미사 중)
 4.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사제관)
 5. 수요일기도회: 수요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35,405원 교무금: 115,000원

(윤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권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요안회 월례회: 30일
 2. 주일학교 후원회: 4월 1일
 3.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누깰다 부녀회: 4월 5일
 5. 성유 축성미사: 4월 3일 중앙성당 11시, 주교님 집전
 6. 성주간 행사: 성목요일-주의 만찬미사 오후 7시,
성금요일-금육과 단식,
성토요일-예수 부활전야제 미사-오후 7시
 7. 신축기금 내주신분: 고채권 10만원
※ 전통성당 신입총액: 1,325,92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7,210원

(전동)

전화 ③2222

주임 신부 김병엽 임수홍
보좌 신부 보태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2. 4월 5일(토) 망부활절: 5시 학생미사 없고
8시미사 주교님 집전
 3. 영세식: 5일<토> 미사중에
 4. 주의 만찬미사: 목요일(3일) 오후 8시
 5. 십자가의 길: 금요일(4일) 오후 8시미사
 6. 월·화·수 아침미사 있고 목·금·토 아침미사없음
 7. 주일학교 부활절행사: 글짓기·사생대회·아동미사후
 8. 윤정이성당 신축기금 신입액: 1,325,920원
 9. 주일학교 도서 기증해 주신분: 윤립자, 이길용, 은영은, 조금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14,25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7시30분(성주간 관계)
 2. 유아세례: 중·고 미사후 오후 3시
 3. 성주간 예절시간: 성목요일-오후 7시30분미사(별지 참조),
성금요일-오후 7시30분, 예절 및 영성체
성토요일-오후 7시30분(조 준비하세요)
 4. 부녀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5. 중·고회합: 오늘 3시미사 후
 6. 성모기사 월례회: 4월 5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81,945원 어린이헌금: 3,480원
교무금: 219,020원